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전환이 통합적 복잡성에 미치는 효과: 신문사설 및 당보를 중심으로

구자숙 · 김정현

서울대학교 심리과학 연구소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 연구소

‘통합적 복잡성(integrative complexity)’이란 정보처리의 한 차원으로서 정보를 다각적으로 탐색하고, 결과와 반응을 다양하게 예측하며, 자신과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전략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통합적 복잡성은 정보 처리의 내용보다는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변별(differentiation)과 통합(integration)의 함수로서 채점된다. 본 연구에서는 IMF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경제적인 위기와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라는 정치적인 중대사가 신문사설과 당보에 나타난 통합적 복잡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각 시기별로 그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경제적 위기가 신문사설에 나타나는 통합적 복잡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외환 위기 의식이 고조되면서 신문사설의 통합적 복잡성 수준이 급격히 낮아졌으며 IMF 구제금융 신청 직후에는 더욱 낮아지는 추세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도 신문사설의 통합적 복잡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선거기간 동안에는 통합적 복잡성이 가장 낮았다가 대통령 선거 이후 및 대통령 취임 이후의 기간에는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추세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여당과 야당간의 사상 초유의 자리바꿈이라는 정치적 대전환이 정당에서 발행하는 당보의 통합적 복잡성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한나라당의 경우 여당에서 야당이 됨에 따라 당보에 나타난 통합적 복잡성이 낮아졌으나 예측했던 바와 달리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에 복잡성 수준이 감소하지는 않았다. 국민회의의 경우 진보적인 성향 때문에 야당시절에도 당보에 나타나는 통합적 복잡성 수준이 높았다가 선거기간에 급격히 낮아졌으나 선거 후 여당으로 바뀔에 따라 다시 높아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전환은 현실인식의 방법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서 위기에 대한 인지적 대처양식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전쟁이나 국내의 혼란상황, 경제적 공황 등의 사회적 위기상황은 그 사회의 지도자, 정부, 시민, 언론 등에 물리적 및 심리적으로 총체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는 경제적인 위기와 대통령 선거가 신문사설에 나타나는 통합적 복잡성(integrative complexity)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국민에 의한 최초의 정권교체라는 정치적인 중대

사가 정당 당보에 나타나는 통합적 복잡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통합적 복잡성이란 정보 처리의 한 차원으로서, 정보 처리의 내용보다는 그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조적인 접근에서는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적인 규칙 등이 관심의 대상이다. 통합적 복잡성 점수는 변별(differentiation)과 통합(integration)

의 두 가지 요인의 함수이다(Schroder, Driver, & Streufert, 1967). 변별이란 개인이 한가지 사건이나 이슈를 볼 때 다양한 측면, 특성, 차원을 인식하는가 혹은 그 사건이나 이슈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하고 사고하고 해석하는지의 여부를 말한다. 통합은 변별된 특성이나 차원들간에 복잡한 연계를 발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연구들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국제적 위기상황에서는 지도자나 각료, 외교적인 담화문의 개념적 복잡성(conceptual complexity)¹⁾ 혹은 통합적 복잡성 수준이 감소함이 밝혀졌다(Suedfeld, Cordeen, & McCormick, 1986; Suedfeld & Tetlock, 1977; Suedfeld, Tetlock, & Ramirez, 1977; Wallace, Suedfeld, & Thachuk, 1996). 여기서의 스트레스란 환경적 요구에 의하여 발생하는 긴장이 성공적으로 해소되지 않았을 때 남아있는 심리적인 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Guttieri, Wallace, & Suedfeld, 1995). 이는 개인 혹은 집단의 대처 능력을 넘어서는 긴장의 잔여로서 복잡한 정보 처리를 불가능하게 한다.

통합적 복잡성 연구의 시작은 Schroder와 그의 동료들의 개념적 복잡성(conceptual complexity)의 연구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Harvey, Hunt, & Schroder, 1961; Schroder, Driver, & Streufert, 1967). 이 연구들에 따르면 개념적 복잡성의 수준 혹은 차원은 개인차가 나타나는 성격 조직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특성이라고 본다. 즉, 사람들의 정보를 변별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Porter & Suedfeld, 1981).

이에 비해 상호작용론적인 입장에서는 주어진 시간에서의 인지기능의 통합적 복잡성은 장기간에 걸친 기질적인 변인들(예를 들어 초기의 학습과 사회화 경험)과 즉각적인 상황적 변인들(예를 들어 위협, 시간 압박, 정보 부하량, 역할 요구 등과 같은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결정된다고 본다(Tetlock, 1985). Schroder와 그의 동료들은(1967) 개념적 복잡성의 수준이 개인들간에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 개인의 복잡성 수준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Suedfeld와 Tetlock(1977)은 성격적 특성으로서의 개념적 복잡성으로부터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처리의 복잡성을 구분하기 위하여 통합적 복잡성이라는 용어를 새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특질 관점”과 “상호작용론적 관점”은 연구에 사용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Porter & Suedfeld, 1981; Tetlock, 1985). 예를 들어 단락완성 검사(paragraph completion test)는 특질 관점에서 사고 양식에서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쓰였던 검사이다(Schroder et al., 1967). 이 검사는 일종의 준투사적 검사(semi-projective test)로서, 피험자들에게 문장 골격(sentence stem)을 제시한 후 각 골격을 완성하고 최소한 하나 이상의 부가적인 문장을 쓰도록 하는 것이었다. 문장 골격은 예를 들어 “내가 비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를 때는...”, “규칙들은...”과 같은 것들이다. 이런 식으로 생성된 단락들을 통해 잘 훈련된 코더들은 피험자들의 개념적 복잡성 정도를 7점 척도상에 평정하게 된다.

이에 비해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통합적 복잡성을 측정하는 후기의 연구들은 위와 같이 실험적으로 생성된 단락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기록자료들(archival material)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혁명 지도자들의 글(Suedfeld & Rank, 1976), 국제적 위기시에 교환된 외교문서들(Levi & Tetlock, 1980; Raphael, 1982; Suedfeld & Tetlock, 1977; Suedfeld, Tetlock, & Ramirez, 1977), 선거 전과 후의 대통령 연설문들(Tetlock, 1981), 그리고 잡지의 사실들(Suedfeld, 1983)이 통합적 복잡성 코딩 시스템을 적용하여 분석되었다(Tetlock, 1985). 이 코딩 시스템은 이러한 자료들이 충분히 길 경우 대부분 적용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Suedfeld, 1978).

환경적인 특성과 통합적 복잡성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에서 상황적인 요구에 따라 인지적인 정보처리의 양식이 변화함이 입증되었다. 한 연구에서는(Suedfeld & Rank, 1976) 혁명 운동에서의 성공 이전과 성공 이후에 혁명 지도자의 통합적 복잡

1) 개념적 복잡성이란 개인이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인지적인 규칙의 복잡성을 의미한다.

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성공적인 지도자의 경우 혁명에 성공하기 이전에 비해 성공 이후에는 통합적 복잡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정권을 탈취하기 전에는 혁명 지도자에게 단순하고 절대적인 책략이 요구되며, 일단 정권을 이양받은 정부로서는 보다 융통성있고 다각적인 접근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제적인 위기 시에 교환된 외교문서들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었는데(Levi & Tetlock, 1980; Raphael, 1982; Suedfeld & Tetlock, 1977; Suedfeld, Tetlock, & Ramirez, 1977), 이 연구들은 위기 시에 보여지는 복잡성 수준과 위기의 해결 방식 사이에는 유의한 연관이 있음을 밝혀주었다. 즉, 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된 경우보다는 전쟁이 일어나고만 경우에 주요한 의사결정자들의 통합적 복잡성 수준이 낮았으며,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양측 대표자의 연설이 통합적 단순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 처하게 되면 인지적 복잡성이 감소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은 분열적 스트레스 효과(disruptive stress effect)라고 명명되었다(Suedfeld & Tetlock, 1977). 의사 결정자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일 경우 결정자들의 주의와 심리적인 자원의 대부분이 그 문제로 집중되어 복잡성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지만, 결국 의사 결정자의 인지적 능력이 고갈되고(예를 들어 다른 요구들이 너무 많거나, 만족할만한 해결책없이 같은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너무 위협적이거나, 혹은 의사결정자가 피로해지거나, 시간적 압박을 받거나, 주의가 분산이 되는 경우) 통합적 복잡성이 감소하게 된다(Guttieri, Wallace, & Suedfeld, 1995).

위와 같은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통합적 복잡성 연구들은 특성 모델로부터 점점 이론적으로 멀어지기 시작하였다(Tetlock, 1985). 통합적 복잡성 구성 개념은 개인차에 관한 예언뿐 아니라 복잡한 정보처리의 상황적인 결정요인들에 대한 가설들도 포함하게 되었다. 통합적 복잡성이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차 변인의 속성(시간, 상황, 이슈들에서 나타나는 어느 정도의 일관성)도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상황·특수적인 변인으로서의 속성(상황과 이슈들에 따라 달라지리라

예측할 수 있는 변화)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화는 특질 불안 그리고 상황 불안과(Spielberger, Gorsuch, & Lushene, 1970) 마찬가지로 통합적 복잡성을 설명한다. 모든 사람은 복잡성의 특질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복잡성의 상한선과 하한선, 혹은 일상적으로 기능하는 수준등이 그 특질적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특질적 수준은 중성적인 검사 상황에서 여러 주제에 걸쳐 일반적인 복잡성을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하지만 각 개인은 복잡성의 상황적 수준도 가지고 있어서, 개인의 통합적 복잡성 수준은 특질과 여러 가지 환경적, 생리적, 심리적 조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Suedfeld & Bluck, 1993).

정치적이고 국제적인 장면에서의 공적인 담화문이나 주요 의사결정자인 지도자들의 통합적 복잡성과 같이 광범위하게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공유되는 경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경험되는 통합적 복잡성도 상황적인 요인에 따라 변화한다는 연구결과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위기와 개인적 위기를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영국의 문학가들의 복잡성 수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본 연구에서는(Porter & Suedfeld, 1981) 전쟁과 같은 사회적·국가적 위기 시에는 전쟁의 강도가 강해짐에 따라 복잡성 수준이 감소함이 밝혀졌다. 하지만 병을 제외한 다른 개인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문학가들의 복잡성이 감소하지 않았다. 유명인의 자서전을 분석한 연구에서도(Suedfeld & Bluck, 1993)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당시의 통합적 복잡성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였다. 그리고 개인적인 위기와 직업적인 위기(professional crisis)에 지도자의 통합적 복잡성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서도(Suedfeld & Granatstein, 1995) 직업적인 위기 시에는 복잡성 수준이 감소하였으나 개인적인 위기 시에는 복잡성 수준이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 상황의 종류에(국가적, 사회적, 직업적인 위기 vs. 개인적인 위기) 따라 개인의 복잡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최근 우리 나라에 일어난 사건 중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큰 사건이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 신청이었다면, 정치적인 면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의미있는 사

건은 단연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제적 위기가 언론 보도에 나타나는 통합적 복잡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 1과 정치적 대전환이 정당에서 발행하는 당보에 나타나는 통합적 복잡성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 2로 구성되었다. 연구 1에서는 기간을 IMF 구제금융신청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 대통령 취임 이전과 이후로도 나눔으로써 경제적 위기 및 대통령 선거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언론이 가지는 현실 구성 능력과 여론형성능력을 고려하여, 그 중에서도 영향력 있는 개인의 해석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설이나 칼럼²⁾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각 기간별로 통합적 복잡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 2에서는 일대의 전환기 혹은 위기일 수 있는 야당에서 여당으로의, 그리고 여당에서 야당으로의 전환이 국회의원과의 한나라 당원들의 통합적 복잡성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탐색해 보았다. 아무래도 우리 나라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정권교체에 가장 첨예하게 영향을 받을 사람들은 바로 당사자인 한나라당과 국회의원의 소속의원들과 당원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당이 표방하는 정책방향과 소속당원들의 시각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것 중의 하나가 당보의 내용일 것이므로 각 당의 당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경제적, 정치적인 위기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 1: 경제적 위기가 신문 사설의 통합적 복잡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1에서는 경제적 위기상황과 대통령 선거가 신문 사설에 나타나는 통합적 복잡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신문 사설의 통합적 복잡성을 분석하는 것은 언론과 사회적 현실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구체적으로 언론과

사회적 현실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백선기, 1997). 첫째는 객관적인 사회적 현실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언론이 객관적인 사회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준다는 현실 반영이론, 거울반사이론이다. 이 이론은 언론이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순전히 그 보도가치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Bogart, 1980)³⁾. 현실반영이론은 객관보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과 언론의 사회적 현실구성이론에 의해 비판받게 된다.

객관보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는 Tuchman(1972)의 주장을 들 수 있다. 그는 객관보도 형식을 언론사의 기업적 조직과 관료화된 취재관행 때문에 생겨난 전략적 의례(strategical ritual)일 뿐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시하여 객관보도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은 언론보도가 특정한 방향으로 기자들 또는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 구성된 현실임을 보여준다. 즉, 객관보도에 입각하여 매스미디어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기능만을 수행한다는 수동적 입장과 달리 사회규정이론 내지는 사회적 현실구성이론⁴⁾은 매스미디어를 적극적인 '사회현실의 규정자'로 정의하며, 나아가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은 매스미디어가 규정하는 현실에 의해 영향받는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언론이 사회

3) Bogart(1980)에 의하면 매스미디어는 우리의 감각범위를 넘어서지만 감각의 확장을 통해 수용할 수 있는 것까지를 재현시켜 주는 현실의 거울로서 우리의 직접 경험을 넘어 확장되어 있는 세계속에 우리 자신을 정박시킬 수 있는 준거점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4) Bennet(1982)은 매스미디어가 뉴스를 통해 수용자의 '지구구성방식'에 소구하며, 이 과정을 통해 사회현실에 대한 윤곽을 형성해 나간다고 하였다. 즉, 그는 매스미디어가 현실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화된 현실을 제시한다고 주장하였다. Hartley(1982)는 뉴스가 어떤 사건의 언어적, 사회적, 역사적 결정요인들을 단순히 반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작용하여 가공되지 않은 자료를 수용자가 친숙하게 수용할 수 있는 인지가능한 산물로 변형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뉴스를 뉴스가치가 있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보도 및 설명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Hall(1978)은 매스미디어가 제시한 현실이 주어진 사실들의 결합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매스미디어는 현실을 단순히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하는 것이며 이는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보다 적극적인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2) 여기서 통합적 복잡성의 주체는 논설위원이나 칼럼니스트 개인들이 된다. 사설이나 칼럼에 나타난 통합적 복잡성의 변화는 논설위원들이나 주필들의 현실을 보는 시각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적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가치관이나 의도에 따라 일정한 해석의 틀 내지는 인지적 도식을 부과함으로써 어떤 사회적 현실이 지니는 의미를 차별적으로 분배하고 상징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오늘날 언론 현실의 보다 많은 부분을 설명해줌으로써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많은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언론이 사회적 현실을 반영해 주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현실을 구성하고 있으며 재 구성된 현실은 국민들이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뿐 아니라 이에 대처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IMF 구제금융 신청 및 대통령 선거에 따라 신문 사설의 통합적 복잡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 1에서는 IMF 구제금융 신청 및 제15대 대선을 전후로 하여 5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우리 나라 4대 일간지에 나타난 통합적 복잡성의 수준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대선이 기간 분류의 기준으로 포함된 것은 연구 1의 주요 관심사인 IMF 구제금융 신청의 시기가 곧 대선기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었다. 구제금융 신청의 효과와 대선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기간이 생기게 되므로 각각의 효과를 독립적으로 분석해 보려면 대선도 기간 분류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기간을 분류함으로써 분석에서 대선의 효과를 제외한 순수한 경제위기의 효과를 알아볼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대선의 효과도 알아볼 수 있었다.

다섯 개로 나눈 기간은 다음과 같다:

기간 1: 1997년 9월 22일부터 10월 21일

기간 2: 1997년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

기간 3: 1997년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

기간 4: 1997년 12월 18일부터 1998년 2월 25일

기간 5: 1998년 2월 25일부터 1998년 3월 25일

기간 1은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었던 기간이며, 기간 2는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인식되기 시작하고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 이전까지의 기간이다. 기간 3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

지기 이전의 기간이며, 기간 4는 1997년 12월 18일부터 1998년 2월 25일까지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취임하기 전까지의 기간이다. 기간 5는 대통령 취임 이후의 기간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적인 위기의 인식과 대통령 선거기간은 인지적 복잡성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간에서 세 번째 기간까지 통합적 복잡성 수준이 낮아지다가, 세 번째 기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후, 네 번째 기간과 다섯 번째 기간에 걸쳐서 복잡성 수준이 회복될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다.

분석 대상이 될 신문으로서의 우리 나라 주류 언론을 대표하는 4대 일간지(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선정하였다. 4대 일간지를 선정한 이유는 구독자 집단이 클 뿐만 아니라 각 신문이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고 우리 나라 언론을 주도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4대 일간지의 소유구조 및 전통에 따라 보도 성향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통합적 복잡성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4대 일간지를 모두 포함시켰다. 조선일보의 경우 우리 나라 최대 부수의 신문으로서 지배적인 사적 자본의 언론 소유 구조하에 보수적 성향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중앙일보는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보수적 성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대재벌이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자본주의적/상업적 색채가 가장 농후한 신문이라는 점에서 선정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민족지로서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야당적 색채가 강한 신문이라는 점에서, 한국일보의 경우 뚜렷한 이념적 논조가 없는 무색무취의 신문이라는 점에서 선정하였다(백선거, 1997). 여러 연구들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진보적이거나 중간 정도의 사람들에 비해 복잡성 수준이 낮음이 입증되었다(Tetlock, 1983b; Tetlock, 1984; Tetlock, Armor, & Peterson, 1994; Tetlock, Bernzweig, & Gallant, 1985; Tetlock, Hannum, & Micheletti, 1984). 이러한 현상이 보수적이거나 보다 진보적인 경향의 신문보도에서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신문에서 보다 낮은 복잡성이 나타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1에서의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로 IMF 구제금융신청이라는 경제적 위기상황이 신문 사설에 나타난 통합적 복잡성에 어떠한 변화를 유발하였는가이다. 두 번째로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중대사가 신문기사의 통합적 복잡성에 어떠한 변화를 유발하였는가이다. 세 번째로는 신문의 특성에 따라 통합적 복잡성이 다르게 나타나는가이다. 각 연구문제에 대한 가설과 구체적인 예언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국의 외환위기는 신문 사설의 통합적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즉 외환위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때에 비하여 위기의식이 생긴 후에는 통합적 복잡성이 감소할 것이고, IMF 구제금융신청 이후에는 더욱 감소할 것이다. 둘째로, 선거운동은 신문 사설의 통합적 복잡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즉 선거운동 기간에는 통합적 복잡성이 감소하였다가 대선 이후와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걸쳐서 증가를 나타낼 것이다. 셋째로, 신문의 특성에 따라 통합적 복잡성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 비해 한국일보의 통합적 복잡성이 크게 나타날 것이며 한국일보보다 동아일보의 통합적 복잡성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방법

자료수집 방법

4대 일간지 사설, 해설, 및 칼럼 가운데 1997년 9월 22일부터 1998년 3월 25일 기간동안에 게재된 모든 기사들을 KINDS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신문의 기사들 중에서 사설, 해설, 및 칼럼들에서만 자료를 추출한 것은 통합적 복잡성 코딩 시스템을 적용하여 정보처리의 구조를 분석하려면 기사가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하는 데에서 그치는 기술적인(descriptive)한 것이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기사를 작성한 사람의 해석이나 관점이 나타나 있어야 통합적 복잡성 코딩이 가능하므로 코딩할 수 없는 자료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설, 해설, 및 칼럼들뿐만 아니라 기사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다. 또한 신문에서 여론을 선도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사설, 해설, 및 칼럼들이기 때문이었다. 이때의 사설, 해설, 및 칼럼들은 정치

현안이나 경제위기의 내용에 국한된 것들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함시켰다. 경제위기나 대선과 같은 주요한 사건들은 사람들에게 총체적인 영향을 주어 현실을 바라보고 비판하는 시각에,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통합적 복잡성 분석은 그 내용의 분석이 아니라 정보처리의 방식과 인지적 구조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이다.

자료의 표집은 연구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연구조교들을 통해 행해졌는데, 이들은 수집된 기사들에서 본 연구에서 정한 5개의 각 기간별로 100개씩의 단락들을 무선적으로(무선표를 이용) 총 500개의 단락들을 표집하였다(각 신문별로는 한 기간에 25개씩의 단락들이 선정됨). 자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단락들이 단순히 기술문들로만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저자의 시각이나 해석이 나타나 있어야 했다. 각 기간에 표집된 단락들이 길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사해 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주요 변인 및 자료 코딩방법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기간과 신문의 종류의 두 가지였다. 기간을 IMF 구제금융 신청과 대통령 선거 전후로 나눔으로써(위기의식이 없었던 시기, 경제적 위기의식이 팽배한 시기, IMF 구제금융 신청이 이루어지고 나서 대통령 선거이전까지, 대통령 취임이전까지, 취임이후의 기간) 경제적 위기와 대통령 선거가 통합적 복잡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신문의 경우 각 신문의 기간별 통합적 복잡성 점수가 다른 신문의 그것과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신문의 보수적 성격에 따라 통합적 복잡성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려 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통합적 복잡성 점수로 측정하였는데, 통합적 복잡성 코딩은 Schroder, Driver와 Streufert(1967)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Baker-Brown 등(1992)이 발전시킨 통합적 복잡성 채점 시스템을 채점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이 채점 시스템을 간략하게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각 단락은 1에서 7점 척

도 상에서 채점된다. 1점은 변별(differentiation)이나 통합(integration)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일차원적이고, 가치 적용적이고, 평가적으로 일관된 규칙을 사용한다. 3점은 중간정도 혹은 높은 정도의 변별은 보이지만 통합의 징후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평가를 할 때 최소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차원이 사용되지만 그 차원들 간의 개념적인 연관성은 고려되지 못한다. 5점은 중간에서 높은 정도의 변별과 중간 정도의 통합을 나타내며 평가의 여러 가지 차원들 간에 개념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통합적인 인지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두 개념들을 연결하는 상위의 범주를 확인하는 것, 서로 다른 차원들간에 공통적인 특성이 있음을 간파하는 것, 서로 대립되는 목표나 가치의 교환(trade-offs)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 혹은 상호작용 효과나 어떤 사건의 원인들을 명세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7점은 높은 정도의 변별과 높은 정도의 통합을 나타낸다. 하나의 일반적인 원칙이 서로 다른 차원들간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개념적 틀이 된다. 이러한 유형의 체계 분석에서는 통합 규칙이 일반화될 수 있는 한계를 나타내는 이차적인 통합 원칙들이 유도되어 나온다. 2, 4, 6점들은 개념적인 구조에서 과도기적인 수준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변별과 통합의 차원들이 명확하고 완벽하게 명시되기보다는 암시적이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채점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여 숙련된 코더와 .80 이상의 신뢰도를 달성하도록 2주 동안 훈련을 받은 두 명의 코더중 한 명이 전체 단락들을 채점하였다. 2주간의 훈련 워크샵은 문제 사례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코딩 결정에 대한 집단 토의로 이루어졌다. 연구에 사용될 자료단락들에서 무선적으로 20%의 단락들을 선정하여 나머지 한 명의 코더가 채점을 하고, 전체 자료를 채점한 코더의 점수들과 신뢰도를 구하여 .83이 나옴으로써 신뢰도의 기준을 만족시켰다.⁵⁾

5) 전통적으로 통합적 복잡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에서는 코더들을 2주간의 워크샵을 통하여 서로간에 그리고 숙련

결과

기간별 신문별 평균 통합적 복잡성 점수를 나타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다변량분석을 적용해 본 결과 기간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4, 480) = 7.706, p < .001, r = .13$. 각 기간별 통합적 복잡성 점수의 평균은 그림 1에 나와있다. 외환위기에 대한 인식과 IMF 구제금융 신청이 통합적 복잡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과 대통령 선거가 신문기사에 나타난 통합적 복잡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비교 분석(contrast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먼저 경제적 위기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기간을 (1), (2), (3, 4, 5)의 세기간으로 나누어 (+1, 0, -1)의 비교 계수(contrast coefficient)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순수한 경제적 위기의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대통령 선거의 효과를 제거하고 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IMF 구제금융 신청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t(480) = 3.726, p < .001, r = .17$.

표 1. 신문 사설에 나타난 통합적 복잡성 점수

변인명	기간1	기간2	기간3	기간4	기간5	평균
조선일보	2.96	2.00	1.88	2.84	2.68	2.47
중앙일보	3.16	2.08	2.16	2.88	3.28	2.71
한국일보	3.20	2.72	2.40	3.08	3.52	2.98
동아일보	3.08	2.20	2.00	3.36	2.48	2.62
평균	3.10	2.25	2.11	3.04	2.99	2.70

두 번째로 대통령 선거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기간을 (1, 2, 3), (4), (5)의 세기간으로 나누어 (-1, 0, +1)의 비교 계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역시, 순

된 코더와 .80 이상의 신뢰도 기준을 달성하도록 훈련시킨 후, 본 연구 진행시에는 분석대상이 되는 단락들에서 무선적으로 15 내지 20%의 단락들을 선정하여 신뢰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쓴다. 그 결과 .80 이상의 신뢰도가 나온다면 코딩이 신뢰로운 것으로 판단한다.

6) 비교분석(contrast analysis)의 결과는 F값으로 제시될 수도 있지만 비교분석을 검증하기 위한 F값들은 모두 분자의 자유도가 1이므로 일방향적 검사를 할 때에는 단순히 그 값의 제곱근을 구함으로써 t값을 계산할 수 있다(Rosenthal & Rosnow, 1985). 본 연구에서는 변화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였으므로 비교분석의 결과를 t로 제시하는 것을 택하였다.

수한 대선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IMF 구제금융의 효과를 제거하고 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선의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t(480)=3.93, p<.001, r=.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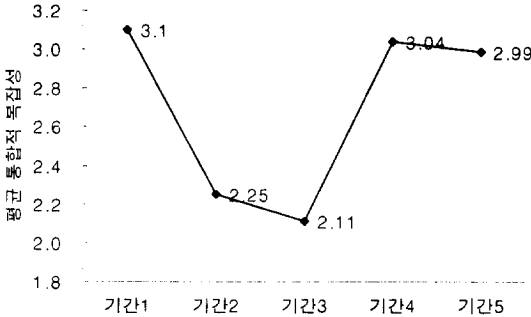


그림 1. 기간별 신문사설의 평균 통합적 복잡성

부가적으로 구제금융 신청과 대선의 효과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5개로 나눈 분석기간 각각에 대하여 (2, -1, -2, -1, 2)의 2차함수적(quadratic) 비교분석 계수를 부여하여 검사해 보았는데, 이 계수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기간 1에는 아무런 위기의식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통합적 복잡성이 가장 높게 나타날 것이다. 기간 2는 외환위기가 인식되기 시작하였던 기간이므로 통합적 복잡성이 조금 낮아질 것이다. 기간 3에는 IMF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요인까지 작용하여 통합적 복잡성 수준이 최저로 나타날 것이다. 기간 4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IMF 구제금융 신청에 따른 충격에서 어느 정도 회복하기 시작하는 기간이므로 통합적 복잡성 수준 또한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다. 기간 5는 대통령 취임이후이므로 통합적 복잡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기간일 것이다. 이 비교분석의 결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t(480)=4.15, p<.001, r=.19$.

하지만 신문의 특성에 따라 통합적 복잡성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가설 3은 지지되지 않았다, $F(3, 480)=1.955, p=.120, r=.06$. 신문과 기간의 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다, $F(12, 480) = .492, p=.92, r=.03$. 예언했던 대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로 묶어 (-1, 0, +1)의 비

교분석을 해본 결과 결과가 전혀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t(480)=.16, p=.44, r=.00005$. 신문별 통합적 복잡성의 평균치를 살펴본 후 결과에 대한 사후분석(post-hoc analysis)을 시도해 보았다. 평균 통합적 복잡성 추세에 따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로 묶어 (-1, 0, +1)의 비교분석을 해본 결과 유의한 결과가 나왔지만, $t(480)=2.308, p=.021, r=.10$,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던 검사이므로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 Bonferroni 절차를 적용하자면 만족시켜야 하는 유의도 .0083(.05/6)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논의

연구 1에서는 경제적인 위기와 대통령 선거가 신문 기사에 나타난 통합적 복잡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첫 번째 비교 분석 결과를 보면 우선 위기의식이 없었던 때에 비하여 위기의식이 생기고 난 후 통합적 복잡성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기간 3에는 IMF 구제금융 신청이 마침내 이루어졌으므로 통합적 복잡성이 더욱 더 감소하였다. 기간 4와 5에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취임한 효과가 공존했기 때문에 이러한 감소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직후에는 신문등의 언론에서 경제 파탄의 주범으로 과소비를 지적하는 등 현실인식을 지나치게 단순한 방향으로 몰고간 예가 있으며(세계일보 11월 18일자, 세계일보 11월 24일자), 이 현상은 신문 상에서도 비판을 받았다(서울신문 11월 28일자). Tetlock(1979)은 애국심과 자국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서 유발되는 선전활동(propaganda)은 국제적인 위기시에 사람들의 사고과정을 극단화시키는 효과(polarizing effect)를 가진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불일치하는 정보를 무시하고 범주적인 사고를 하여 통합적 복잡성이 낮아지고 집단사고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외환위기와 같은 국난에 접했을 때 언론사의 논설위원이나 주필들도 경각심과 애국심이 고조될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이들의 사고과정을 단순화시게 되는데, 갈등이나 위기에 대한 이들의 시각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독자들이 위기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Porter & Suedfeld, 1981). 만일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하여 다각적인 시각에 접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융통성있는 정보처리가 가능해진다면 통합적 복잡성 수준이 올라가게 되고, 일방향적인 시각만을 접하는 경우에는 단순하고 이분법적인 정보처리가 이루어져서 복잡성 수준이 내려가게 될 것이다.

위에서와 같이 사실, 해설, 및 칼럼에 나타난 통합적 복잡성의 변화가 논설위원이나 주필들의 현실을 보는 시각의 실제적인 변화를 반영한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를 인상유지의 설명(impression management explanation)을 적용시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현 상황에서 국난타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복잡성 수준으로의 변화를 나타낼 수도 있다. 높은 복잡성 수준이 언제나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시간을 지연할 수 없는 다급한 상황하에서는 높은 통합적 복잡성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비생산적일 수 있다(Guttieri, Wallace, & Suedfeld, 1995). 복잡한 사고과정은 시간과 노력 면에서 단순한 사고과정보다 더 많은 자원이 들며 중요한 정보에서 사소한 문제로 주의와 자원을 돌리게끔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Suedfeld & Wallbaum, 1992; Tetlock & Boettger, 1989).

따라서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특히 국민의 여론을 선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사실이나 칼럼의 복잡성 수준이 감소할 수 있다. 언론의 사회적 현실 구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국난 극복에 도움이 되는 의식과 여론의 형성에 언론이 보다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비교 분석 결과를 보면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인 기간 1, 2, 3에는 통합적 복잡성 수준이 낮았으나, 이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취임이후로 넘어가면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대통령 선거는 국가적인 중대사이므로 온 국민의 관심사일뿐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신문, TV, 벽보 등 우리를 둘러싼 거의 모든 정보적 환경이 비방과 홍보로 넘쳐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선거 자체가 특정 후보들에 대한 호·오, 지지·반대를 이분법적

으로 결정하게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개인들의 인지적 구조를 단순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단순히 선거와 정치적인 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사고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거기간 동안에는 신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도 하는데, 특히 사실이나 칼럼에는 논설위원들이 정치적 논점이나 특정 후보의 노선에 대한 논평을 게재하는 일이 많다. 이때에 논설위원들의 논조도 자연스럽게 지지나 반대의 이분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통합적 복잡성이 낮아질 수 있다. 대선의 효과 역시 인상유지 설명 혹은 인지적 경영자 모델(Suedfeld, 1992)로도 설명할 수 있다. 즉 상황의 요구에 따라 변별과 통합의 수준을 변화시키는 것이 좋은데, 선거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각의 제시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복잡성 수준을 의식적으로 낮추는 것일 수도 있다. 선거기간 동안에는 대통령 후보나 정당의 성명서 혹은 담화문의 복잡성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Tetlock, 1981), 선거운동 기간에는 이슈의 제시가 단순하게 이루어지다가 선거 후면 이슈들에 다각적이고 복잡한 접근을 한다고 한다. 선거기간 동안에는 고의적으로 단순하고 흑백론적인 입장을 표명하다가 재임기간 시에는 불가피하게 인기없는 결정을 내려야할 때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복잡한 접근법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정책 담화문의 통합적 복잡성이 선거운동 기간에 비하여 대통령 취임 직후에 급작스러운 증가 경향을 나타냈으며, 재선 연도에는 다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사실이나 칼럼의 통합적 복잡성도 여론 형성의 효율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변화한 것일 수도 있다.

세 번째로 신문의 특성에 따른 통합적 복잡성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신문의 소유구조 및 전통에 따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순으로 통합적 복잡성의 점수가 유의하게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4대 주요 일간지 성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보수성과 진보성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 한가지 가

능성은 신문 사설에 나타나는 보수성과 진보성은 통합적 복잡성 수준에서의 차이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연구 2: 여당과 야당 전환에 따른 통합적 복잡성의 변화

지난해 말 우리 나라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당의 명칭들이 수없이 바뀌고 합당도 수 차례 이루어졌지만, 여당은 언제나 여당으로서 야당은 만년 야당으로서 남아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여지껏 야당의 역할만을 해오던 국민회의가 핵심 여당의 자리를 차지하고, 영원한 여당일 줄로만 알았던 한나라당이 야당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분명 여당과 야당은 하는 역할이 다르다.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Tetlock, Hannum, & Micheletti, 1984). 그리고 대통령이 모든 사람에게서 지지받을 수 없는 결정을 내릴 때 이를 지지하여야 하고, 이를 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이전의 연구에서 자신의 관점을 타인들에게 정당화시켜야 할 필요성(accountability)이 있을 때는 정보를 보다 복잡하게 처리하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Tetlock, 1983a; Tetlock, Skitka, & Boettger, 1989). 하지만 정당화의 필요성이 언제나 인지적으로 복잡한 처리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타인의 태도를 미리 알고 있지 않을 때는 보다 부지런하게 다각적으로 복잡한 정보처리를 하여 자신의 입장을 제시한다(Chaiken, 1980; Cvetkovitch, 1978; McAllister, Mitchell, & Beach, 1979; Tetlock, 1981). 하지만 개인이 타인의 태도나 신념을 미리 알고 있다면, 게으른 유기체(McGuire, 1969) 혹은 인지적 절약자(Taylor, 1980)로서 최소한의 인지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편으로 자신의 입장을 상대방과 유사한 쪽으로 변화시킨다.

여당은 폭넓은 지지를 얻기 위해 국민 전체에 대해 여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해야 하므로 여당의 입장

표명은 상대방의 관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여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통합적 복잡성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반해 야당 의원들은 표방하는 입장을 정당화해야 할 필요성이 적고, 주로 여당이나 대통령의 결정을 공격하는 일을 하게 된다. 따라서 야당 의원들은 주로 흑백론적 용어를 사용하며 낮은 수준의 인지적 복잡성을 나타낼 것이다(Tetlock, Hannum, & Micheletti, 1984).

이전의 여러 연구와 연구 1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개인들, 더 나아가서는 여론형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인들 즉 논설위원이나 칼럼니스트들도 상황적 압력이나 요구에 따라 통합적 복잡성의 변화를 나타낸다.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야당과 여당의 자리바꿈을 한 이 시점에서 두 정당 소속의원들의 통합적 복잡성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시각과 입장의 변화를 짚어보는 것은 상당한 이론적 의미를 가진다. 정치적 전환은 각 정당의 소속의원들에게는 직업적 위기나 전환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직업적인 위기나 전환점은 분명히 의원들이 나타내는 통합적 복잡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여당만을 해온 당으로서 강한 보수적인(conservative) 성향을 나타내 왔으며, 국민회의는 일관적으로 진보적인(liberal) 색채를 띄어왔다. 보수적인 개인들은 진보적이거나 중간 정도의 사람들에 비해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의 폭이 좁으며 인지적으로 경직되고 단순한 경향이 있다고 한다(Adorno et al., 1950; Stone, 1980; Wilson, 1973). Tetlock(1984)은 미국의 상원의원들의 정책담화문들을 분석한 결과, 보수적인 의원들이 진보적이거나 중간 정도의 의원들에 비하여 정책 이슈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보다 단순한 평가규칙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의 다른 연구에서는(Tetlock, Hannum, & Micheletti, 1984) 진보적인 상원의원들과 보수적인 상원의원들 간의 통합적 복잡성 차이가 국회 회기에 따라 달라짐을 발견하였는데, 진보적인 상원의원들의 경우 자신들이 소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을 때는 인지적 복잡성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에 비해 보수적인

의원들은 자신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건 소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건 간에 상관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낮은 인지적 복잡성 수준을 유지하였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의 당원들이 나타내는 통합적 복잡성 수준은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다. 국민회의는 원래 진보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데다가 여당이 되었으니 보수적이고 야당이 된 한나라당에 비하여 그 소속의원들의 통합적 복잡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국민회의가 야당이므로 통합적 복잡성이 낮을 것이지만 전통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고려해 보면 통합적 복잡성이 높을 것이 예측되므로 분명한 예언을 하기가 어렵다. 아마도 두 요인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대통령 선거 이전의 통합적 복잡성에서는 두 당 의원들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연구 2에서는 대선을 중심으로 하여 기간을 네 개로 나누고, 한나라당과 국민회의의 당보에 나타난 통합적 복잡성을 기간별로 분석하였다. 소속의원들이나 당원들의 시각변화를 반영하는 자료로서 성명서나 담화문들을 구하려고 시도해 보았으나, 각 정당에서 체계적으로 그러한 자료들을 수집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입수가 불가능하였다. 차선책으로 당보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당보를 선정한 것은 당보가 당원들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당보의 내용은 각 당의 수뇌부가 현실을 보는 시각을 잘 반영하고 있고, 의원들이나 당원들은 그러한 시각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네 개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 기간 1: 1997년 8월 15일부터 11월 21일
자료 수: 50×2 = 100
- 기간 2: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
자료 수: 50×2 = 100
- 기간 3: 1997년 12월 18일부터 1998년 2월 25일
자료 수: 20×2 = 40
- 기간 4: 1998년 2월 25일부터 1998년 4월 25일
자료 수: 50×2 = 100

기간 1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공식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기간이며, 기간 2는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기간 3은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고 취임하기 전까지의 기간이며, 기간 4는 대통령 취임 이후의 기간이다.

연구 2에서의 연구문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여당과 야당이라는 특성에 따라 소속의원들의 통합적 복잡성이, 즉 여기서는 당보에 나타난 통합적 복잡성이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전후와 기간 동안의 통합적 복잡성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가이다. 연구 2에서의 주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의 당보에 나타난 통합적 복잡성은 네 기간에 걸쳐서 변화추세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즉, 정당과 기간사이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것인데, 이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예언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로, 기간 1에는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간에 당보에 나타나는 통합적 복잡성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 둘째로, 기간 4에는 국민회의의 당보에 나타난 통합적 복잡성은 한나라당 당보에 나타난 통합적 복잡성에 비해 높을 것이다. 셋째로, 국민회의와 신한국당의 당보에 나타난 통합적 복잡성은 모두 선거기간에 가장 낮고 대선 이후 차츰 회복할 것이다.

방법

자료 및 수집 방법

연구 2는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통합적 복잡성의 수준이 가장 낮으며, 대통령 선거 결과 여당과 야당간에 자리바꿈이 일어났으므로 한나라당과 국민회의⁷⁾ 소속의원들이나 당원들의 시각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살펴보고자 한 것으로 분석 대상의 자료로 각 당에서 발행하는 당보를 선정하였다⁸⁾. 각 정당이 자기 당의 활동 사항

7) 본 연구에서는 자민련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계속 여당을 해오다가 갑자기 야당의 역할을 맡게 되고, 계속 야당을 해오다가 여당이 된 대표적인 정당들로서 한나라당과 국민회의를 대조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을 설명하고 자기 당이 표방하는 정책을 어떻게 정당화하는가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당보이며, 또한 소속의원들이나 당원들의 시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도 당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한나라당의 경우 1997년 11월 21일 신한국당이 민주당과 합당함으로써 출범하였기 때문에 한나라당 출범 이전의 분석 대상 자료는 신한국당에서 발행한 당보를 이용하였다.

1997년 8월 15일부터 1998년 4월 25일에 이르는 기간 중 발행된 당보를 모두 모은 다음, 이 전체 기사들 중에서 각 기간별로 50개씩의 구체적인 분석대상 자료를 선정하였는데, 기간 3의 경우 한나라당이 단 1회의 당보만을 발행하였기 때문에 분석대상 자료의 수를 20개로 축소하였다. 자료의 표집은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연구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연구조교들이 수집된 기사들에서⁸⁾ 연구기간 및 분석자료 수에 맞는 단락들을 무선적으로(무선표를 이용) 표집하였다.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당보에 나타난 기사 가운데 사설, 해설, 및 칼럼 기사와 같이 저자의 해석이나 관점이 표출되어 있어 통합적 복잡성 코딩이 가능한 기사만을 선택하였다. 각 기간에 표집된 단락들이 길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사해 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주요 변인 및 자료 코딩 방법

연구 2의 독립변인은 정당과 기간의 두가지였다. 통합적 복잡성 코딩도 연구 1을 통해 숙련된 코더들이 담당하였으며, 연구 2에 사용한 단락들 가운데 무선적으로 20%의 단락들을 선정하여 한 명의 코더가 채점하고 하고 이를 전체 자료를 채점한 코더의 점수와 신뢰도를 구한 결과 신뢰도 계수가 .85가 나오므로써 신뢰도의 기준을 만족시켰다.

8) 한나라당과 국민회의 모두의 경우에 있어 당보가 주 1회 내지는 월 1회식으로 정기적으로 발행된 것은 아니지만 월 1-2회 정도로 발행하고 있었으며(선거기간 동안에는 보다 자주 발행하였으며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한나라당의 경우 한동안 발행이 중단되었음), 연구자들이 당사를 방문하여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당보를 모두 구할 수 있었으므로 연구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았다.

결과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당보에 나타난 기간별 통합적 복잡성 점수의 평균은 그림 2에 나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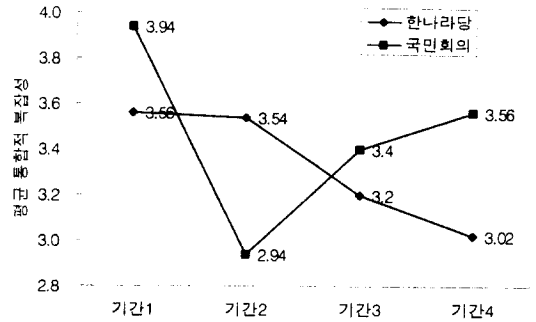


그림 2. 기간별 당보의 평균 통합적 복잡성

먼저 기간과 정당을 독립변인으로 한 다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기간의 효과가 .05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미약하게는(marginally) 나타났다, $F(3, 332) = 2.385, p = .069, r = .08$. 기간과 정당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올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F(3, 332) = 2.786, p = .041, r = .09$. 기간에 따른 통합적 복잡성의 변화가 두 당의 당보에서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기간 1에서 두당 간의 통합적 복잡성 수준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예언은 지지되었다, $F(1, 98) = 1.479, p = .227, r = .12$. 기간 4에서 여당이 되고 진보적인 성향의 국민회의가 야당으로 탈바꿈한 보수적인 한나라당보다 당보에 나타난 통합적 복잡성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예언은 미약한(marginal) 수준으로 지지되었다, $F(1, 98) = 3.735, p = .056, r = .19$. 국민회의와 신한국당의 당보에 나타난 통합적 복잡성은 모두 선거기간에 가장 낮고 대선 이후 차츰 회복할 것이라는 예언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정당별로 네 개 기간에 (1, -2, 0, 1)의 계수를 부여하여 비교분석을 하였다. 이 예언은 국민회의의 경우에만 입증되었고, $t(166) =$

9) 단락을 표집하기 위하여 기사들을 수집할 때, 단순회당의 활동을 기술하는 기사들을 제외하고 현 시국이나 정치적 노선에 대한 자기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모든 내용의 기사들을 포함시켰다. 당보의 성격상 거의 모든 기사들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상대당의 입장을 비판하고 자기당의 입장을 설명·옹호하는 내용이었다.

3.04, $p=.003$. $r=.23$,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t(166)=-.97$, $p=.333$. $r=.08$.

논의

한나라당과 국민회의 모두 선거기간과 정권교체를 겪으면서 통합적 복잡성 수준이 변화하였다. 하지만 그 변화의 추세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국민회의 측 당보에서는 예측했던 대로 선거기간 동안에 통합적 복잡성 수준이 감소하였다가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취임이후에 점차로 증가하였다. 한나라당 당보에 나타난 통합적 복잡성은 대통령 선거 시에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이후에 점차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그림 2참조). 이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로 한나라당 측은 지난 선거운동기간 중 상대방 후보를 공격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국민회의가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 집안의 병역기피 문제를 들고 나왔고, 이로 말미암아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로 그 문제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데에(accountability의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우 통합적 복잡성 수준이 낮아지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 나라 역사상 여당이 한번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만난 여당의 기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선거기간 동안에 더 효율적일 수 있게끔 통합적 복잡성을 낮추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효과적인 선거전략을 채택하는데 실패한 것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측했던 대로 선거 이전에는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의 당보에 나타난 복잡성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회의가 야당이었으므로 소속의원들이나 당원들의 시각에서 복잡성 수준이 낮게 나타나야 하지만 국민회의의 진보적인 특성이 복잡성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한나라당의 경우 여당이었으므로 소속의원들이나 당원들의 시각에서 복잡성 수준이 높게 나타나야 하지만 한나라당이 가지

는 보수성 때문에 복잡성 수준이 낮아지는 상쇄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취임 후 여당과 야당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에는 국민회의의 당보에 나타난 통합적 복잡성이 한나라당의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합적 복잡성에 있어 특질론적 접근과 상호작용적인 접근을 모두 지지하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두 당이 전통적으로 진보성과 보수성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소속의원들의 기본적인 복잡성 수준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당에서 야당으로, 야당에서 여당으로의 변화로 인해 상황적인 요구가 달라졌고 이에 따라 두 당 의원들의 복잡성 수준이 변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 체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전쟁이나 국내의 혼란상황, 경제적 공황의 사회적 위기상황이 그 사회의 지도자, 정부, 시민, 언론 등에 물리적 및 심리적으로 총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는 경제적인 위기 및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인 중대사가 신문 사설 및 칼럼에서의 현실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시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는 획기적인 정치적 변화를 의미하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여지껏 한번도 여당이 되어본 적이 없는 국민회의가 여당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한번도 야당을 해본 적이 없는 한나라당이 야당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가 두 정당의 당보에 나타나는 통합적 복잡성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두 정당의 소속의원들이 이러한 정치적 전환을 겪으면서 어떠한 시각 변화를 겪었나를 추론하려고 하였다.

연구 1의 결과에서 밝혀진 것은 경제적 위기상황이나 정치적 중대사가 신문 사설 및 칼럼에 나타난 통합적 복잡성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이는 인간의 사회적 현실 인식 대상을 규정하고 나아가 현

실에 대한 평가까지 좌우하는 언론의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 복잡성 수준의 변화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째로 여론 선도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신문의 논설위원이나 주필들의 경우에도 위기의식과 국난 극복의 의지가 팽배해져서 사고과정이 극화되고 단순화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 나라 주류 언론들이 사회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위기상황 시에 현 상황을 해석하거나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필요에 따라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켜가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객관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가치관이나 의도에 따라 일정한 해석의 틀 내지는 인지적 도식을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현실이 지니는 의미를 차별적으로 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 사설이나 칼럼에 나타난 통합적 복잡성 수준의 변화를 통해 언론사의 논설위원이나 칼럼니스트들이 경제적 위기상황에 당면하면서 수행해온 역할을 살펴보면 위기상황 초기에는 통합적 복잡성 수준을 낮춤으로써 국민들에게 위기를 인식시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고, 사회적으로도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국민들이 국난극복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자 통합적 복잡성 수준을 높이면서 보다 다각적인 시각과 해석을 제시하고 국난극복의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변화하였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대통령 선거기간도 사설, 칼럼, 및 해설에 나타나는 통합적 복잡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선거기간에는 통합적 복잡성 평균이 가장 낮았으며, 대통령이 취임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높아졌다. 선거과정이 사고과정을 호·오와 찬성·반대의 이분법적 차원으로 단순화시키는 역할을 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사설이나 칼럼의 궁극적인 목표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독자들의 여론을 형성시키는 것이라면, 의도적으로 선거기간 중에 보다 효과적인 정보전달 방법인 단순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연구 2에서는 정치적 전환점으로서 여당과 야당의 전환이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의 당보에 나타나는 통합적 복잡성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와 아울러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의 특성 또한 통합적 복잡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드러났다. 즉 선거기간 이전에는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의 당보에 나타난 통합적 복잡성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이 여당이었으면서 특징적으로 보수성을 지니며 국민회의가 야당이었으면서 진보성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국민회의의 당보에서는 선거기간 동안에 통합적 복잡성이 감소하였다가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취임이 이루어지면서 회복되었는데, 이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통합적 복잡성을 낮춰서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그리고 대통령 취임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통합적 복잡성을 높여서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나라당은 선거기간 동안에 통합적 복잡성이 감소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이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이 효율적인 선거전략을 채택하지 못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대통령 취임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야당으로 변화한 한나라당의 경우 당보에 나타난 통합적 복잡성이 감소하여서 여당이 된 국민회의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당보에 나타난 시각이나 현실을 인식하는 방법이 각 당의 소속의원들의 시각을 타당하게 반영해 주고 있다면, 정치적 전환을 통하여 한나라당의 소속의원들과 국민회의 소속의원들의 시각이 상당한 변화를 겪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당보에 나타난 통합적 복잡성이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대선을 치루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즉 야당으로서의 시각을 채택하게 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시각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역시 각 당의 입장제시 전략에 있어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위의 두 가지 변화는(시각의 근본적인 변화와 입장제시 전략의 변화) 거의 동시에 일어나며, 당사자도 실제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판단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연구 2의 제한점으로는 통합적 복잡성 코딩이 이루어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발행된 당보들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단락들을 추출해내는 일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당보가 각 당 소속의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시각을 대표한다고 보는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자료가 지나치게 비개인적이라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다.

추후연구에서는 각 정당의 의사결정자들이 대선 기간 전후에 걸쳐 직접 발표한 담화문이나 성명서들을 모두 입수하여 통합적 복잡성의 변화를 분석한다면, 선거 결과와 관련지어서 각 정당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또 그러한 전략들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백선기 (1997). 한국선거보도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 북스.
- 서울신문 (1997). 경제위기 책임론. 11월 28일자.
- 세계일보 (1997). 경기불황 비웃는 사치품 수입. 11월 18일자.
- 세계일보 (1997). 과소비 사회의 파괴충동. 11월 24일자.
- Adomo, T., Frenkel-Brunswik, E., Levinson, D., & Sanford, N. (1950). Modes of resolution of belief dilemma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 343-352.
- Baker-Brown, G., Ballard, E. J, Bluck, S., de Vries, B., Suedfeld, P., & Tetlock, P. E. (1992). The Conceptual/Integrative Complexity Scoring Manual. in C. P. Smith(ed.), *Motivation and Personality: Handbook of Thematic Content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00-418.
- Bennet, T. (1982). Media, 'Reality', Signification. in M. Gurevitch, T. Bennet, & J. Woolacott (eds.). *Culture, Society and the Media*. London: Methuen, 287-308.
- Bogart, L. (1980). Television News as Entertainment. in P. Tannenbaum(ed.). *The Entertainment Functions of Television*, Hillsdale: Lawrence Associates, Inc., 209-249.
- Chaiken, S. (1980). Heuristic versus systematic information processing and the use of source versus message cues in persua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752-766.
- Cvetkovitch, G. (1978). Cognitive accommodation, language, and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Psychology*, 41, 149-155.
- Guttieri, K., Wallace, M. D., & Suedfeld, P. (1995). The Integrative Complexity of American Decision Makers in the Cuban Missile Crisi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9(4), 595-621.
- Hall, S.(1978). *The Social Production of News in Policing the Crisis: Mugging, the State, and Law and Order*. New York: Holmes & Meier.
- Hartley, J. (1982). *Understanding News*. London: Methuen.
- Harvey, O. J., Hunt, D. E., & Schroder, H. M. (1961). *Conceptual Systems and Personality Organization*. New York: Wiley.
- McAllister, D. W., Mitchell, T. R., & Beach, L. R. (1979). The contingency model for the selection of decision strategies: An empirical test of the effects of significance, accountability, and reversibilit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24, 229-244.
- McGuire, W. J. (1969). The nature of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In E. Aronson &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Vol. 3). Reading, Mass.: Addison-Wesley.
- Levi, A., & Tetlock, P. E. (1980). A Cognitive Analysis of Japan's 1941 Decision for War. *Journal*

- of *Conflict Resolution* 24(2), 195-211.
- Porter, C. A., & Suedfeld, P. (1981). Integrative Complexity in the Correspondence of Literary Figures: Effects of Personal and Societal 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321-330.
- Raphael, T. D. (1982). Integrative Complexity Theory and Forecasting International Cris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6(3), 423-450.
- Rosenthal, R., & Rosnow, R. L. (1985). *Contrast analysis: Focused comparisons in the analysis of vari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roder, H. M., Driver, M. J., & Streufert, S. (1967).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tone, W. F. (1980). The myth of left-wing authoritarianism. *Political Psychology*, 2, 3-20.
- Suedfeld, P. (1983). Authoritarian leadership: A cognitive interactionist view. In J. Held (Ed.), *The cult of power: Dictators in the twentieth century* (pp.1-22).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uedfeld, P. (1978). Die Messung Integrativer Komplexität in Archivmaterialien (Measuring Integrative Complexity in Archival Materials). In E. Mandl and G. L. Huber (eds.) *Kognitive Komplexität*. Göttingen: Hogrefe Verlag.
- Suedfeld, P. (1992). Cognitive Managers and Their Critics. *Political Psychology* 13, 435-453.
- Suedfeld, P., & Bluck, S. (1993). Changes in Integrative Complexity Accompanying Significant Life Events: Historical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124-130.
- Suedfeld, P., Corteen, R. S., & McCormick, C. (1986). The Role of Integrative Complexity in Military Leadership: Robert E. Lee and His Oppone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6, 498-507.
- Suedfeld, P., & Granatstein, J. L. (1995). Leader Complexity in Personal and Professional Crises: Concurrent and Retrospective Information Processing. *Political Psychology* 16(3), 509-522.
- Suedfeld, P., & Rank, A. D. (1976). Revolutionary Leaders: Long-term Success as a Function of Changes in Conceptual Complex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4, 169-178.
- Suedfeld, P., & Tetlock, P. E. (1977). Integrative Complexity of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ris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1, 169-184.
- Suedfeld, P., Tetlock, P. E., & Ramirez C. (1977). War, Peace, and Integrative Complexity: UN Speeches on the Middle East Problem, 1947-1976.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1, 427- 442.
- Suedfeld, P., & Wallbaum, A. B. C. (1992). Modifying Integrative Complexity in Political thought: Value Conflict and Audience Disagre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6, 19-36.
- Suedfeld, P., Wallace, M. D., & Thachuk, K. L. (1993). Changes in Integrative Complexity Among Middle East Leaders During the Persian Gulf Crisis. *Journal of Social Issues* 49(4), 183-199.
- Taylor, S. (1980). The interface of cognitive and social psychology. In J. H. Harvey (Ed.), *Cognition, social behavior, and the environment*. Hillsdale, N. J.: Erlbaum.
- Tetlock, P. E. (1979). Identifying Victims of Groupthink from Public Statements of Decision Mak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314-1324.
- Tetlock, P. E. (1981). Pre-to Postelection Shifts in Presidential Rhetoric Impression Management or Cognitive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 and *Social Psychology* 41(2), 207-212.
- Tetlock, P. E. (1983a). Accountability and Complexity of Though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1), 74-83.
- Tetlock, P. E. (1983b). Cognitive Style and Political Ide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1), 118-126.
- Tetlock, P. E. (1984). Cognitive Style and Political Belief Systems in the British House of Comm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2), 365-375.
- Tetlock, P. E. (1985). Integrative Complexity of American and Soviet Foreign Policy Rhetoric: A Time-Series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6), 1565-1585.
- Tetlock, P. E., Armor, D., & Peterson, R. S. (1994). The Slavery Debate in Antebellum America: Cognitive Style, Value Conflict, and the Limits of Compromi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1), 115-126.
- Tetlock, P. E., Bernzweig, J., & Gallant, J. L. (1985). Supreme Court Decision Making: Cognitive Style as a Predictor of Ideological Consistency of Vo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5), 1227-1239.
- Tetlock, P. E., & Boettger, R. (1989). Accountability: A Social Magnifier of the Dilution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3), 388-398.
- Tetlock, P. E., Hannum, K. A., & Micheletti, P. M. (1984). Stability and Change in the Complexity of Senatorial Debate: Testing the Cognitive Versus Rhetorical Style Hypothe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5), 979-990.
- Tetlock, P. E., Skika, L., & Boettger, R. (1989). Social and Cognitive Strategies for Coping with Accountability: Conformity, Complexity, and Bolster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4), 632-640.
- Tuchman, G. (1972). Objectivity as Strategic Ritu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7, 660-679.
- Wallace, M. D., Suedfeld, P., & Thachuk, K. A. (1996). Failed Leader or Successful Peacemaker? Crisis, Behavior, And The Cognitive Processes of Mikhail Sergeyevitch Gorbachev. *Political Psychology* 17(3), 453-472.
- Wilson, G. D. (1973). *The psychology of conservatism*. New York: Academic Press.

Integrative Complexity in Newspaper Columns and the Bulletins of Political Parties: The Impact of Economic Crisis and Political Transition on Integrative Complexity

Jasook Koo and Junghyun Kim

The Institute of Psychologic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grative complexity refers to the extent to which people search for and monitor information, try to predict various outcomes and reactions, and consider multiple options and strategies. It focuses on the cognitive structure rather than the content of information processing, and is measured in terms of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The present study explores the impact of economic crisis and political transition in Korea on integrative complexity expressed in newspaper columns and the bulletins of political parties. In study 1, integrative complexity scoring was performed on newspaper columns. Complexity declined with recognition of economic crisis, was lowest right after the IMF bail-out. Complexity was lowest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and rose again after the election. In study 2, paragraphs randomly sampled from the bulletins of *Hannara-dang* and *Kukminwheey* were analyzed to see how complexity was influenced by the first peaceful turn-over of political power. The complexity expressed in the bulletin of *Hannara-dang* declined as it lost the reins of government, but it did not show any decline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The complexity expressed in the bulletin of *Kukminwheey* was initially high due to its progressive tendency, then sharply declined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and then increased after it seized power. Integrative complexity of Newspaper columns and the bulletins of political parties was found to be sensitive to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which might be a way of coping with the crisis.